

불보살이 상주하는

북한산 이야기 ① 승가봉



“아! 승가 스님”

비봉능선의 사모바위와 문수봉 사이에 있는 봉우리로 높이는 해발 567m이다. 이름은 산 아래쪽에 있는 절, 승가사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 스님은 낮에는 두건을 쓰고 다니다가 밤에 혼자 방에 있게 되면 두건을 벗는데 두건을 벗으면 움푹하게 패인 정수리에서 신비한 향내가 피어올라 방안을 가득 채운다고 합니다.

신라 경덕왕 때 수태 스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로움을 줄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 명산을 찾아다니며 수행에 전념했다. 그러나 삼십년이 지나도 자신한테 그런 힘이 생기지 않자 낙담하여 고향인 삼각산 아래 구기리로 왔다.

삼각산을 오르는 수태 스님 앞으로 파랑새 한 마리가 호르르 호르르 날아갔다. 처음에는 무심히 보았지만 새가 하는 짓이 마치 자기를 따라 오라며 안내하는 것 같았다. 새는 가파른 산길을 오르다 잠시 쉬는 수태 스님을 따라 날기를 멈추기도 하고, 스님이 자리에 앉아 쉬면 저도 나뭇가지에 앉아 쉬었다.

수태 스님 지은 '승가사'에서 유래 승가사는 승가 스님 친견한 곳

남이 자꾸만 따라오라며 손짓을 하는 꿈을 꾸었다. 꿈속의 일이 너무 궁금했지만 마땅히 떠오르는 것이 없었다. 수태 스님은 그길로 절을 찾았다. 부처님께 참배를 마치고 나오니 나무 아래 참깨를 손질하는 노스님이 보였다. 스님은 다가가 간병의 꿈을 해석해 달라 했다.

“바위 굴속에 이렇게 많은 물이 고여 있구나!” 수태 스님은 신기해하며 허리에 찻던 표주박으로 물을 뜨려 하는데

노스님은 두건을 쓴 이는 장안 천복사의 승가 스님 같다고 했다. 당나라 장안의 승가 스님은 인도 스님으로 널리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 중국으로 왔으며, 신통을 부려 사람들이 원하는 일을 들어 주신다 했다. 순간 수태 스님은 귀가 번쩍 뜨였다.

“그 물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것이다.” 하는 소리가 들렸다. 놀란 스님이 주위를 살펴보니 전날 밤 꿈속에서 보았던 두건을 쓴 스님이 벽쪽에 앉아 계신 게 아닌가.

“스님,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사람들을 이롭게 하셨습니까?” “어느 해인가 가뭄으로 당나라에 큰 불이 저절로 나 눈이고 밭이고 다 타 버려 민심이 흉흉하고 나라마저 위태롭게 되었을 때, 나라에 괴질이 들었을 때도 승가 스님이 들고 있던 물병의 물로 불을 끄고 괴질도 고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나라 사람들은 승가 스님을 관세음보살의 화신으로 생각하고 부처님처럼 모신다고도 합니다.”

수태 스님이 감격해서 승가 스님 쪽으로 몸을 돌리려 하는데 스님은 홀연히 사라지고 굴 안에는 신비한 향내가 가득했다. 그 향내는 승가 스님이 잠시 모습을 나타내셨음을 증명하는 것 같았다. “저 자리에 승가 스님의 좌상을 모시자. 앉아계셨던 모습 그대로.”

노스님의 이야기를 들은 수태 스님이 물었다. “그럼 그 스님이 들고 계신 물병은 관세음보살님이 들고 계신 감로병인가?” “글쎄요, 거기에 대해선 내가 말할 수 없지만 사람들이 그 스님을 관세음보살의 화신으로 믿는 걸 보

수태 스님은 굴속에 자신이 본 모습 그대로 승가 스님 좌상을 모셨다. 그리고 굴이 있는 자리에 절을 짓고 이름을 승가사라 했다. 그 후 사람들은 그 좌상을 ‘승가관음보살상’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승가사가 있는 뒤 봉우리를 승가봉이라고 불렀다. 승가 스님이 예언한 대로 굴 안의 석간수는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었다. 신라, 고려, 조선을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세종대왕의 비인 소현왕비도 이 물을 먹고 죽음의 고비에서 살아났다고 전한다. <얘기꾼> 김미정

죽음마저 각오한 시코쿠 순례의 시작과 끝



신중일 기자 일본 관서 고찰을 가다

① 고야산 ④



일본 진언밀교의 성지 고야산(高野山)의 전경. 8개의 봉우리에 둘러싸인 본지인 이곳에서 흥법대사 구카이 스님은 전법을 펼쳤고, 지금도 그 가르침은 면면히 이어져오고 있다.



시코쿠 순례자들은 고야산에서 순례를 시작하거나 회향한다.

구카이의 진언종 개창 성지 日서 가장 종교색 짙은 곳 시코쿠 순례 前後 찾아와 안녕과 원만 회향 기원해



구카이 스님의 진언밀교를 현실화한 단조가란의 근본 대탑.

현재의 가가와현에서 태어났다. 그의 집안은 사누키국을 세운 유력한 가문이고 어머니는 헤이안 시대 고승을 배출한 집안출신이었다고 한다. 어려서부터 유교 경전과 중국 <사서>를 배웠지만 어느 날 한 승려를 만나 ‘허공장구문지법(虛空藏求聞持法)’을 백만 번 외우면 모든 가르침의 참뜻을 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출가의 뜻을 굳혔다.

시코쿠에서 태어나 시코쿠에서 깨달음을 얻은 구카이 스님의 발걸음을 좇는 순례이기도 하다.

결국 20세에 출가해 24세 때는 <삼교지귀(三教指歸)>라는 책을 저술해 일찍이 배운 유교와 불교·도교를 비교하고 불교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남다른 식견을 보여주기도 했다. 30세에는 당나라로 건너가 청룡사의 혜과 스님을 만난다. 그곳에서 구카이 스님은 밀교를 전수받게 된다.

현재 연간 15만 명이 다녀갈 정도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시코쿠 순례길은 일반적으로 도보를 원칙으로 한다. 88개의 사찰을 전부 순례하는 데 40~60일이 소요되며, 형편에 따라 일주일 혹은 열흘씩 나눠 걷기도 한다.

귀국 후 스님은 고야산으로 들어와 밀교 경전을 널리 전파하고 이른바 진언종 동밀(東密) 일파를 개창했으며 진언종의 독립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다가 62세의 나이로 입적했다.

이 순례길에 오르는 이들은 ‘하쿠이’라 불리는 흰 옷을 입고, ‘스게가사’라 불리는 삿갓모자를 쓰고, 구카이 스님을 상징하는 ‘즈에’라는 이름의 지팡이를 들고 걷는다.

기이반도 북서부에 위치한 ‘고야산(高野山)’은 ‘진언밀교(眞言密敎)’의 성지로 일본에서 가장 종교색이 짙은 장소로도 잘 알려져 있다. 지리적으로는 이마키봉 등 8개의 봉우리로 둘러싸인 분지를 총칭하는 고야산은 일본 불교 진언종(眞言宗)의 창시자인 흥법대사 구카이(空海) 스님에게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시코쿠 순례 도중 사망했고, 현재도 1년에 20명 씩 순례 중 운명을 달리한다. 과거에는 순례 중 죽으면 땅에 묻은 후 그 위에 삿갓을 덮고 지팡이를 꽂았다고 한다. 이는 순례처 어디서도 죽어도 좋다는 순례자의 각오이다.

구카이 스님은 밀교를 전수받게 된다. 귀국 후 스님은 고야산으로 들어와 밀교 경전을 널리 전파하고 이른바 진언종 동밀(東密) 일파를 개창했으며 진언종의 독립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다가 62세의 나이로 입적했다. 고야산에는 고카이 스님의 진언밀교에 대한 상상을 현실화한 단조가란(壇上伽藍)을 비롯해 117개의 사찰이 존재하며, 일본 국토의 2%가 이곳에 소장돼 있다. 말 그대로 일본 불교와 종교의 한 단면이 고야산에는 존재한다. 이와 함께 고야산을 주의 깊게 봐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곳이 시코쿠 순례의 시작점이자 종착점이기 때문이다.

순례자들은 순례 전이나 순례 후 고야산으로 간다. 구카이 스님이 입적한 오쿠노인을 참배하며 순례의 안녕을 기원하거나 무사히 마침을 감사드린다. 구카이 스님이 안민과 구복을 위한 깨달음의 길은 현재에도 면면히 고야산을 중심으로 내려 오고 있는 것이다. motp79@hyunbul.com

이 원고는 조계종 교육원 승려 연수프로그램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부처님의 계심을 선언한 영산불교 현지사가 세상에 던지는 사자후!!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 II 광명만덕 자재만현 큰스님 저. 각 450쪽 475쪽 가격 각각 18,000원 21세기의 금강경. 부처님이 무아속 절대계에 계심을 선언하다 베스트 셀러

행복하게 잘 사는 길 <관음태교> 영산불교사상연구소저. 187쪽. 가격 10,000원 태교를 통해 행복한 삶의 출발을 안내하는 길잡이

법문집 <자재만현 큰스님 법문집 1~11권> 자재 만현 큰스님 저. 각권 500페이지, 가격 20,000원 자재 만현 큰스님의 정기법회 법문들을 모으다

경전 및 해설서 <영산불교와 본문묘법연화경> 자재 만현 저. 380쪽. 가격 25,000원 <법화경>의 근간인 본문8품을 재편집하고 자재만현 큰스님의 해설을 실어서 법화경 이해의 새로운 길을 제시한 역작

<관음태교에서 부처님 천도까지> 영산불교사상연구소저. 320쪽. 가격 15,000원 불자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시작, 행복한 죽음을 안내하는 보배같은 책

<붓다의 메시지 요해> 영산불교사상연구소저. 269쪽. 15,000원 <21세기 붓다의 메시지>의 사상적 측면만을 요약 해설하다

<영산불교 새천수경> 자재 만현 저. 131쪽. 가격 7,000원 관음신앙을 바르게 정립하기 위해 기존 <천수경>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새로이 편집한 역작

<부처님께서 주관하시는 천도제> 영산불교사상연구소저. 30쪽. 무료배포 부처님께서 3악도에 빠진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배우시는 특별한 의식인 천도제에 대한 해설

<붓다의 메시지 존평> 조우석 외. 512쪽. 가격 15,000원 <21세기 붓다의 메시지>에 대한 불교 내외의 여러 학자들의 평론들

<영산불교 금강반야바라밀경> 광명만덕 자재만현 큰스님 감수 이대성 저. 704쪽. 가격 20,000원 <금강경오가해>와 차원을 달리하는, 일불승의 입장에 선 새로운 금강경해설서

신불교 영산불교의 법세계 <붓다의 가르침에서 바라본 세계종교> 광명만덕 자재만현 큰스님 감수. 김중섭저. 715쪽. 가격 25,000원 인류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세계적인 종교에 대해 장단점을 해부한 종교비평서

<깨달음을 넘어 붓다까지> 영산불교사상연구소저. 489쪽. 가격 15,000원 영산불교의 법세계를 수행적 측면에서 해설하다

<영산불교 지장보살본원경> 광명만덕 자재만현 큰스님 감수 이대성저. 594쪽. 가격 15,000원 처음으로 지장보살님의 실체를 밝히고 있는 지장보살본원경 해설서

<영혼체 윤회론> 영산불교사상연구소저. 158쪽. 가격 10,000원 불교역사상 2천년간의 무아와 윤회주체 사이의 모순을 해결하고 획기적인 영혼체윤회론을 천명하다

<영산불교의 법세계> 영산불교사상연구소저. 80쪽. 가격 10,000원 육도윤회의 실상, 청명염불 수행의 실제, 진정한 효행의 길인 현지사의 천도제를 설명하고 있다